

3. 總 評

이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1기 제 3차 임시 중앙위원회에서의 특별결의문으로서, 지난 2001년 8·15 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전상봉 의장 석방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 본 결의문의 내용은 현 정부가 지난 8·15 통일 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들 가운데 7인을 구속한 것에 대한 비난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을 뿐임. 이는 곧 현 정부에 대한 비난과 소위 “보수세력”에 대한 비난으로서, 이러한 비난이 친북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반체제적 지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음. 반정부적 차원의 문건으로 판단됨.

2002年 月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지웅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전민족 행보를 가로막지말라
 나. 作 成 者 : 2001민족통일대축전 음해저지 및 방북인사 석방을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
 다. 發行處(日) : 위와 같음 (2001. 11. 13)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1) 본 문건은 ‘2001민족통일대축전 음해저지 및 방북인사 석방을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 명의의 유인물로, 한나라당 반대 및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방북인사의 석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고 있는 총 1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6.15공동선언을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이 반공, 반북의식을 유포하며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2) 한나라당을 반대하며,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
- 3)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음해, 왜곡하고 방북인사를 구속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섰다고 비판하고 있음.
- 4) 방북인사의 구속은 반통일세력의 반민족, 반통일 행각이라 비판하고 있음.
- 5) 한나라당이 방북인사의 석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고 있음.
- 6) 한나라당의 반민족, 반통일 행각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3. 總評

본 문건은 6.15공동선언과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이 반공, 반북의식을 유포하며 훼손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반대 및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음해, 왜곡하고 방북인사를 구속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섰으며, 방북인사의 구속은 반통일세력의 반민족, 반통일 행각이며, 한나라당이 방북인사의 석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고 있음. 나아가 한나라당의 반민족, 반통일 행각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등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빌미로 야당을 비판하며, 방북인사의 구속을 통해 현정부까지 반통일세력으로 몰아 비판하고 있는 반정부적 성향이 매우 강한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年 3月 11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최 경 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민중대회 한국청년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한국청년결의대회 참가자 일동(2001. 12. 2)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재야청년운동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가 주축이 된 '한국청년결의대회'에서 채택한 《민중대회 한국청년결의대회 투쟁결의문》으로 반미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도발 책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침략책동 분쇄투쟁 등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대남선동주장과 일치하는 맥락의 주장이다.

" 미국은 아프간침략전쟁을 통해 패권적 지배질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과 일본의 자위대 파병, 한국정부의 비상경계령, 파병움직임 등 전쟁분위기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사회의 보수화, 반동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물리치고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사대매국정책을 분쇄할 때 까지 강력한 선봉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다음과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미국의 침략전쟁, 한국군 파병, 지원결사 반대한다"

둘째, 현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인사, 애국인사들을 탄압하며 반민주적 반민중적 사대매국정책을 자행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김대중정권 반대” 등을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거듭되는 실정과 폭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극심한 가운데 전쟁분위기까지 겹쳐 김대중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성격은 더욱 전면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일인사, 애국인사에 대한 구속과 공안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미국의 전쟁책동, 경제침탈 물리치고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사대매국정책을 분쇄할 때 까지 강력한 선봉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다음과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반민주악법 철폐하라! ..민생파탄, 사대매국정권 김대중정권 반대한다”

3. 總評

이 문건은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을 수용동조하여 미국과 현정부(반민중적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를 왜곡비방하며 이에 대항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사대매국정권 반대”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현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친북용공성(親北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2年3月11日

公安問題研究所

연구관

유동열

(印)

1. 對 象

- 가. 文 件 名: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강령(안)”
- 나. 作 成 者: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다. 發 行 處(日): 상동 (2002. 2. 24.)

2. 分 析

가. 概 觀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준) 강령규약소위에서 2001년 2월 10일 제정 제출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 강령(안)'과 한청에서 2002년 2월 24일 제정 제출한 '한청 규약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 1) 규약 개정안의 강령 부분에서 한청은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 주장은 바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1. 우리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43쪽 4-5행)

2) 개정안의 규약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에서 한청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이다. 자주란 반미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국내 좌익권중 NL주사파의 3대 투쟁강령이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43쪽 10-11행)

3) 규약 개정안의 강령 부분에서 한청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령> ...1.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42쪽 14행 - 43쪽 1행)

- 이 하 여 백 -

3. 總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규약 개정안의 강령 부분에서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 주장은 바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 2) 개정안의 규약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에서 한청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이다. 자주란 반미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국내 좌익권중 NL주사파의 3대 투쟁강령이다.
- 3) 규약 개정안의 강령 부분에서 한청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문건에서는 북한의 통일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연방제' 조국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와 같은 맥락에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북한의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고, 한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노선을 수용하고, 그것에 동조 지지하고 있으므로,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 年 3 月 11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자기혁신을 위한 제언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상동. 2003. 7.26

2. 分 析

1. 상기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작성한 유인물로,
2. 스스로 “<<한청>>운동은 <<한총련>>과 함께 청년학생운동을 대표하며 노동자, 농민의 계급운동과 더불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봉대적 역할을 최선두에서 이끌어 가는 주력군이자 전체혁명운동에서 통일운동전선운동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라며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2쪽),
3.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정권 등장은 미제의 식민지 지배구도에 있어서 일정변화를 의미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혁명노선에 있어서 변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3쪽), 여기서 한국사회를 ‘미제의 식민지 지배구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 인식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음.

<예시>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정치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211쪽)

4. 아울러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론의 전략전술’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바(4-5쪽), 이는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음.

3. 總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발행처가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으로 발행한 것임.

전반적인 내용은 상기 단체의 2001년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하면서 2002년도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 대체로 反美투쟁과 연방제 통일 등을 선전선동하는 등 통상 북한이 對南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좌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2002年 5月 15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이 조 원 印

1. 對象

- 가. 文件名 : “아리랑 축전에 대해 알아본다”
- 나. 作成者 : 한총련
- 다. 發行處(日) : 상동 (2002)

2. 分析**가. 概觀**

본 문건은 한총련에서 교양자료참고용으로 발행한 ‘아리랑 축전’에 대한 특집 기사문으로서, 북한의 대집단체조는 세계적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대집단체조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고, 미군기지반환운동, 미군범죄근절운동 등의 다양한 반미운동은 주한미군철거운동을 지향해가고 있고 한국 땅에서 민족자주를 향한 열기는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예술공연사상 유례없는 걸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아리랑 축전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나. 問題內容 分析

- 1) 북한의 대집단체조는 세계적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대집단체조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아리랑은 이북이 4월 29일-6월 29일 까지 공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다. 일찍이 이북의 대집단체조(메스게임)는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흔히 전 세계에서 이북의 대집단체조를 따라 올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1면 상단)

2) 미군기지반환운동, 미군범죄근절운동 등의 다양한 반미운동은 주한미군철거운동을 지향해가고 있고 한국 땅에서 민족자주를 향한 열기는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바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민족자주를 향한 열기는 올 들어 특히 이남 땅에서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 기왕의 미군기지 반환운동, 미군범죄근절운동, 한미행정협정폐지 운동 등의 다양한 반미운동은 주한미군철거운동을 지향해가고 있으며, 올 들어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고조되어온 이남 국민의 반미감정은 부시방한저지투쟁으로 절정에 이르렀고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으로 더더욱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9면 중단)

3)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예술공연사상 유례없는 걸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아리랑 축전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의 명곡들과 민족무용, 예술체조와 교예, 황홀한 배경미술, 현대적인 장치물과 조명수단들을 총 동원하여 진행하는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세계예술공연사상 유례없는 걸작품이다.”(4면 중단)

3. 總評

본 문건의 문제내용을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의 대집단체조는 세계적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대집단체조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 2) 미군기지반환운동, 미군범죄근절운동 등의 다양한 반미운동은 주한미군철거운동을 지향해가고 있고 한국 땅에서 민족자주를 향한 열기는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바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 3)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세계예술공연사상 유례없는 걸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아리랑 축전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다.

본 문건은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우월성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건은 북한노선을 수용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것을 선전 및 찬양하고 있으므로, '容共'성향의 문건으로 평가된다.

2002年 6月 29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정 원 영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범청학련남측본부 황선대변인 연행을 규탄하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성명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1. 7. 10)

2. 分 析

가. 文 件 概 要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로, 남북학생이 합의한 '6·15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남북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활동한 범청학련 남측 본부 황선 대변인에 대한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과 범청학련,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총 1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장에서 남북학생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남북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활동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 대변인에 대한 구속을 비판하며,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고 있음(1쪽).
“또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이다”
- 2)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는 반통일수구세력의 탄압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1쪽).
- 3) 한총련과 범청학련,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음(1쪽).

3. 總評

본 문건은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장에서 남북학생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남북공동행사'의 성사를 위해 활동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 대변인에 대한 구속을 비판하며, 구속자 석방, 반통일수구세력의 탄압 중단,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나아가 한총련과 범청학련,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등 반정부적 성향이 매우 강한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9 月 1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최경환印

鑑定書

1. 對象

가. 文件名 : 「미상공회의소 농성투쟁 한청 성명」

나. 作成者 : 불명

다. 發行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2. 2. 25)

2. 分析

가. 본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한청협이 지난 2월 美 대통령 부시의 訪韓을 앞두고 한총련 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을 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의 성명서임. 대체로 좌익적 투쟁목표 하에 반미투쟁을 선동하고자 하는 상기 단체의 의도를 감지케하나, 1면 분량의 짧은 본 문건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성명의 주된 내용은 “미상공회의소 투쟁은 전세계를 위협하고, 그래서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고있는 진짜 전쟁주범이 미국임을 분명히 천명한 투쟁이었다”고 강조하고 한총련 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주장이 통상 이들의 좌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지케 하나, 본 문건의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됨.

<이하 여백>

3. 總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한청협이 지난 2월 美 대통령 부시의 訪韓을 앞두고 한총련 학생들의 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을 한 것을 두둔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성명서임.

대체로 이들의 좌익적 투쟁목표 하에 반미투쟁을 선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지케하나, 1면 분량의 짧은 본 문건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키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年 9月 10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研究官 이조원 印

鑑定書

1. 對象

가. 文件名 : 한청 1기 사업평가초안

나. 作成者 : 한청

다. 發行處(日) : 상동

2. 分析

1. 상기 문건은 한청에서 작성한 사업평가 초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2. 북한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는 국가이며 찬양하고 있음.

<예시>

사회주의권의 동반몰락 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업 수행으로 향하는 유일한 국가 (13쪽)

3. 나아가 반미자주화투쟁, 반전평화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음.

<예시>

--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학살만행 등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반미감정은 더욱 고양되고 있으며 (13쪽)

상반기 강위력한 반미자주,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승리로 결속 짓고 (14쪽)

반미자주화, 사회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일체화시켜 나가며 --- 민생투쟁을 반미투쟁과 결합하는 방향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14쪽)

민중생존권 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나아가 민족자립경제건설 투쟁으로 상

승시켜는데 청년이 앞장선다 (15쪽)

-- 반전평화투쟁과 이에 득세하는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지역 곳곳에서 전개하였다 (31쪽)

4. 이어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북한이 통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음.

<예시>

2. 6. 15 공동선언으로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을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맞추어 완전철폐를 현실화시킨다 (5쪽)

한총련과 범민련 이적규정을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5쪽)

4 대핵심투쟁은 6. 15 공동선언 지지관철 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 (6쪽)

김대중정권의 보수화와 친미사대성 노골화 (12, 16쪽)

3. 總評

상기 문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1. 한청에서 작성한 사업평가 초안으로, 북한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는 국가이며 찬양하고 있으며,
2. 반미자주화투쟁, 반전평화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바,
4.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이 통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임으로,
5. 주사파계열의 용공성 문건이라 사료된다.

2002年9月10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조용관 印

鑑定書

1. 對象

가. 文件名 : 제2기 2차 중앙위원회

나. 作成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行處(日) : 위와 같음 (2002. 4. 6)

2. 分析

가. 文件概要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명의의 유인물로, 한청의 사업기조로 지정협 강화 발전 및 반미반전을 중심으로 아리랑축전과 6.15-8.15 통일사업의 전면적 전개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측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총 23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部內容

1) 안건으로 서부청년회, 광주전남청단체협의회, 경기민청 등 신규단체 가입 승인에 관한 건을 다루고 있음(1-5쪽).

2) 서부청년회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선전하고 있음(2쪽).

3) 한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전하며, 민중연대사업위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다루고 있음(5-6쪽).

4)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며, 미국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북한의 차단을 비롯하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적론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반외세 등을 선전하고 있음(7-8쪽).

“한편 북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전쟁 책동에 단호하면서도.....중략.....남북간 대규모 접촉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8쪽)

- 5) 아래로부터 민족대단결운동과 반전반미운동을 주장하고 있음(9쪽).
- 6) 한청의 사업기조로 지청협 강화 발전 및 반미반전을 중심으로 아리랑축전과 6.15-8.15 통일사업의 전면적 전개를 주장하고 있음(10-17쪽).
“6.15 공동선언 실현, 반전반미의 가치아래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면서 선거투쟁을 차단한다” (17쪽)
- 7) 6.15 민족통일대축전 및 8.15 통일행사 개최를 주장하고 있음(15쪽).
- 8) 북측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적극 환영하고 있음(21쪽).
“북측의 정부, 정당.....중략.....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현시켜 나간다”
- 9) 아리랑 성사 투쟁을 결의하고 있음(23쪽).

3. 總評

본 문건은 한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전하며, 한청의 사업기조로 지 청협 강화 발전 및 반미반전을 중심으로 아리랑축전과 6.15-8.15 통일사업의 전면적 전개를 주장하고 있음.

또한 북측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적극 환영하며, 미국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북한의 차단을 비롯하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적론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반외세 주장을 선전하며, 나아가 아리랑 성사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등 친북성향의 용공성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9 月 1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최경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제1기 3차 중앙위원회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1. 10. 13)

2. 分 析

가. 文件 概 要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명의의 유인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체성 실현을 주장하며, 4대 핵심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평양통일대축전의 성과 및 한청 1기 통일대행진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자주화투쟁 및 반통일수구세력 척결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총 25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4대 핵심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체성 실현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 지지관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 회부 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 및 미군기지 반환 투쟁을 등을 주장하고 있음(1, 6쪽).
“한청 조국통일 투쟁의 목표는 상반기.....중략.....미군기지 반환 투쟁이었다” (6쪽)
- 2) 평양통일대축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7-9쪽).
- 3) 한청 1기 통일대행진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음(10-13쪽).

4)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자주화투쟁 및 반통일수구세력 척결투쟁을 주장하고 있음
(15-22쪽).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중략.....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한다” (21쪽)

3. 總評

본 문건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체성 실현을 주장하며, 4대 핵심투쟁으로 615 공동선언 지지관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 회부 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 및 미군기지 반환 투쟁을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자주화투쟁 및 반통일수구세력 척결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등 친북성향의 통일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용공성 주장인 내용임.

2002年 9月 10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최경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제1기 평가와 전망소위 안건지3차 중앙위원회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다. 發 行 處(日) : 위와 같음 (2001. 12. 26)

2. 分 析

가. 文件 概 要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명의의 유인물로, 자주교류 투쟁 및 한청 의장 구속 석방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한청의 4대 핵심투쟁으로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등을 주장하고 있는 총 12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 部 內 容

- 1) 6.15 공동선언지지 투쟁, 자주교류 투쟁 및 한청 의장 구속 석방투쟁을 주장하고 있음(2쪽).
 '6.15공동선언지지투쟁(반미, 반통일).....중략.....전체청년들이 집결하여 투쟁하는 것평'
- 2) 자주, 민주, 통일의 정체성 실현을 주장하며, 4대 핵심투쟁으로 6.15 공동선언지지이행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주장하고 있음(3-7쪽).
- 3) 교육선전대중사업을 주장하고 있음(8-9쪽).
- 4) 주요 투쟁 일지를 수록하고 있음(10-12쪽).

3. 總評

본 문건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체성 실현을 주장하며, 4대 핵심투쟁으로 615 공동선언 지지관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과 국제전범재판소 회부 투쟁, 매향리 폭격장 폐쇄 및 미군기지 반환 투쟁을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 자주교류 투쟁 및 한청 의장 구속 석방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등 반정부적 성향이 매우 강한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9 月 1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최경환 印

鑑 定 書

1. 對 象

- 가. 文 件 名 : 청년대중활동 사례집
- 나. 作 成 者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다. 發行處(日) : 위와 같음 (2001)

2. 分 析

가. 文件概要

1) 본 문건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명의의 유인물로, 청년대중사업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구로청년회의의 청년광장, 울산청년회의의 청년학교, 경기동부회의의 청년대학, 그리고 연기사랑청년회의의 지역대중사업을 사례별로 다루고 있는 총 24쪽 분량의 내용임.

나. 細部內容

- 1) 청년운동의 대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례집을 편찬한다고 언급하고 있음(2쪽).
- 2) 구로청년회의의 청년광장의 1기에서 6기까지의 활동을 다루고 있음(4-10쪽).
- 3) 울산청년회의의 청년학교에 대해 조직화 및 활동을 다루며, 이후 지역 연대사업과 당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음(11-15쪽).
- 4) 경기동부회의의 청년대학에 대해 목적 및 일정을 다루고 있음(16-18쪽).
- 5) 연기사랑청년회의의 지역대중사업으로 2001년 어린이날 한마당을 언급하고 있음(18-24쪽).

3. 論評

본 문건은 청년대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사례집을 편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로청년회의 청년광장의 1기에서 6기까지의 활동, 울산청년회의 청년학교의 지역 연대사업과 당활동 모색, 경기동부회의 청년대학의 목적 및 일정, 그리고 연기사랑청년회의의 지역대중사업으로 2001년 어린이날 한마당을 다루고 있는 등 반정부적 성향의 비판적 주장인 내용임.

2002 年 9 月 10 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최경환 印

鑑定書

1. 對象

가. 文件名 : 「제2기 8차 중앙상임위원회」

나. 作成者 : 불명

다. 發行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2. 8. 28)

2. 分析

가. 본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한청협이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 형식으로 발행한 것임. 보고 안건과 토의 안건 등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할만한 내용은 없는 수준임.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보고내용으로 2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와 지청협 보고 등을 담고 있고 안건토론 부분에서는 8.15 민족통일행사 평가 등을 담고 있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하기는 어려운 수준임.

<이하 여백>

3. 總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한청협이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 형식으로 발행한 것임. 보고 안건과 토의 안건 등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적성을 지적할만한 내용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됨.

<이하 여백>

2002年9月10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이조원 印

鑑 定 書

1. 對 象

가. 文 件 名 : 「제2기 7차 중앙상임위원회」

나. 作 成 者 : 불명

다. 發行處(日) :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2. 7. 30)

2. 分 析

가. 본 문건의 개요

본 문건은 상기 한청협이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 형식으로 발행한 것임. 토의 안건의 내용중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에 입각한 선전선동을 대체로 수용 동조하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나. 문제의 내용 분석

(1) 우선 “대선투쟁 논의에 관한 건”이라는 부분에서 그 사업목표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적 과제를 전면에 들고 대중의식화 조직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6면), 여기서 자주민주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를 위한 강령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2) 또한 상기 글에서 투쟁의 총적 방향으로 “... 하반기 대선정국을 힘있게 돌파하기 위해 민족민주운동진영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투쟁의 중심고리는 노농연대에 기초한 식량주권 산업주권 사수투쟁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 규탄투쟁 두 가지이다. 이 두가지 투쟁을 중심 축으로 하고 여기에 시기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미군 기지 반환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결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결국 이땅을 지배하고 우리의 운명을 유린하는 미국놈들 때문이라는 것, 그들을 몰

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은커녕 민족의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7면), 이러한 투쟁 선동은 통상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는 수준의 주장임을 감지케 함.

(3) 또한 상기 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합법화는 6.15공동선언의 시금석이며 6.15 시대에 맞게 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10면), 이러한 주장도 통상 북한이 대남적화전술적 차원에서 선동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이하 여백>

3. 總評

앞의 분석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문건은 상기 한청협이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료집 형식으로 발행한 것임. 본 문건의 토의 안건 내용중 북한이 대남 적화전술에 입각한 선전선동을 대체로 수용 동조하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본 문건은 좌익성을 지닌다고 판단됨.

<이하 여백>

2002年 9月 10日

公安問題研究所

研究官 이조원 印

251-110

鑑 定 書

1. 對 象

가. 문 건 명 : 제2기 5차 중앙상임위원회

나. 작 성 자 : 불명시

다. 발행처(일)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2. 6. 5)

2. 分 析

가. 개 관

이 문건은 국내 재야청년운동의 통일전선체격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한청)의 《제2기 5차 중앙상임위 회의자료집》으로 2기4차 회의결과와 각 부서 사업보고, 안건토론 및 향후 행사일정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나. 문제점

첫째,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책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미국 부시정권의 전쟁정책 반대, MD(미사일방위) 구축반대, 미군기지 전면반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반미선동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부시정권의 한반도 전쟁정책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은 악의 축 발언에 이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길을 열어놓은 핵태세비밀보고서까지 세상에 내놓았다 ... 중략... 세계평화를 파괴 | 하는 미국 부시정권의 패권적 전쟁정책과 대테러 침략전쟁 반대! ... MD(미사일방위) 구축 등 군비확충반대 - 전쟁사령부 미군기지의 신설확대 반대!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7-8면)
외 11면 등

둘째, 이른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의 중심구호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설정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선동 주장과 일치한다.

“13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중략... 민중생존권 쟁취! 신자유주의 분쇄! 615 공동선언 이행! 양신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2면)

3. 總 評

이 문건은 북한당국의 대남선동을 여과없이 수용동조하여 “미국의 전쟁정책 반대, MD구축 반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정당화하며 고무선전하는 것인바, 이 문건은 친북용공성(親北容共性)이 있다고 분류된다.

2002 年 9 月 9 日

公 安 問 題 研 究 所

연구관

유 동 열

(印)